

Beautiful Mind Charity Concert

A touching performance, a perfect harmony

BY JEON HYE YOON



At 1:00 pm on October 12, Tan Tock Seng Hospital Theatrette hosted a beautiful concert attended by about 100 audience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ingapore, Oh Joon, and Dr. Lee Suan Yew's presence graced the occasion. Beautiful Mind Charity Concert, a cultural charity group, happily shared love and harmony regardless of race and nationality with its performances.

The harmony of the cello, the violin, the piano, the clarinet, the *haegum*, the *geomungo*, and the *janggu* is truly heartfelt. The clarinetist stood out in the performance. Sang Jae Lee is the first blind clarinetist, who had earned a Ph.D in the world renowned Peabody Institute of Music. Cellist Il Hwan Bai is well known to Christians as he was one of the members of Soma Trios, and now a music professor at Ewha Women's University.

As a group, Beautiful Mind goes to people in need and performs charity concerts. Proceeds from the concerts will help people in need, and this time they donated the proceeds to the Tan Tock Seng Community Charity Funds for patients. The meaningful event in Singapore made the Koreans proud of their performers and contributions.



감동의 무대, 환상의 하모니 Beautiful Mind Charity Concert

지난 10월12일 오후 1시 Tan Tock Seng 병원의 Theatrette에서는 약100명 남짓의 관객을 모시고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오준 대사를 비롯 Dr. Lee Suan Yew 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자선단체인 뷰티풀 마인드 자선 콘서트는 인종과 국적을 넘어 사랑과 화합을 통해 함께 나누는 기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무대이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클라리넷, 해금과 거문고, 장구의 하모니는 듣고 있는 관객들의 가슴까지 뭉클하게 해 주었다. 이중 클라리넷 연주자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클라리넷을 맡은 이상재 연주가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클라리넷티스트이며, 세계적인 명문 피바디 음대 박사 출신이다. 배일환 첼리스트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소마트리오' 출신이며,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자선 콘서트를 열고 수익금으로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단체 뷰티풀 마인드는 이번 공연의 수익금도 Tan Tock Seng Community Charity Fund를 통해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였다.

이렇게 의미있는 일들로 싱가포르 사회에 한국인의 이름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앞으로도 싱가포르 땅에 한국인들의 선행의 바람이 계속 불길 바란다. ■